

화려해지는 의생활

주강현 / 문학박사, 민속학자, 경희대 강사

먹고, 옷입고, 집쓰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많이 거론 되는 대목들도 이들 의식주 문제일 것이다. 그만큼 의식주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 북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서 의식주 해결을 꼽거나 의생활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옷차림과 머리 모양, 화장이 본격적인 변화조짐을 보인 것은 1989년 초 부터다. 평양 축전을 앞두고 북한은 사로청과 여맹들의 조직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의 생활에 맞는 공산주의적 도덕 기풍을 드높이자”는 이름 아래 검정통치마에 흰서고리 일색이던 옷차림의 다양화를 촉구하였다. 즉 ‘인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과제’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인 탓도 있다. 이는 특히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해체의 파장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과제이며, 변화된 국제 정세에 맞추어 인민 생활의 질을 드높이는 과제로 제기된 지 오래되었다.

첫번째는 평등과 욕망의 상관 관계다. 전쟁의 참화에서 주체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 ‘우리식으로 살자’는 구호에 따라 전일적 지도체계로 살아온 북한의 주민들에게 평등이란 개념

으로만 본다면 의생활에서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공급되어 풍족하게 사용하고 있는 옷문제 해결 방식 역시 일정한 기대치 이상을 요구하기 마련인 셈이다. 가령 근로복이나 일상복을 배급으로 지급받아 생활상의 충족을 이루는 점은 전과 다름이 없으나 만약 근로자가 배급 이상의 추가로 양복 따위의 옷을 구하려면 높은 값을 치러야 한다. 즉 일상적 배급 범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인간의 추가적인 욕구 기대치에 부응하려면 비싼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좋은 양질의 옷을 보다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법칙이 성립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점증되는 것이다. 평등은 이루어져 있으나 더 높은 욕구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의 ‘현대적 미감’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알맞는 옷감, 옷차림, 옷색깔 등이 강조되고, 유난히 현대적 미감이란 말이 1980년대 이래로, 특히 김정일의 본격적인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이면에는 변화된 사회 현실에 맞게 현대적 미감으로 옷을 만들고 입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와 같이

별다른 장식이나 고안을 하지 않더라도 전사회가 합의하여 참고 이겨낼 정도를 벗어나서 복식 생활에서도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이는 작게는 남북한 교류라는 현실적 과제 앞에서 의당 의생활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실 과제가 등장한 것이다. 조선옷 일색이던 여성들의 옷차림이 대단히 복잡하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평양의 거리 풍경에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경공업 생산품의 대외적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같은 현실 과제를 부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옷이나 옷감의 미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을 도입하거나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의 수출이 강화되는 등 국제적인 감각으로 상품을 팔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도 옷의 미감 문제는 현실 과제인 셈이다.

셋째는 다양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옷이란 개념을 작게 잡으면 단순하게 걸치고 있는 것으로만 볼 수도 있으나, 광의의 옷차림에는 신발, 머리 장식이나 기타 장식들, 심지어 화장품도 포함된다. 신발의 질을 높이거나 신발 문수를 다양화하고 여성들의 액세서리도 개발하며, 화장품을 다양하게 만든다는 문제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의 1980년대는 이러한 노력이 시작된 본격적인 시기로 보인다. 가령 화장품을 옹게 쓰는 방식 등이 자주 여성 잡지 등에서 거론되고 새로운 화장품이 개발되었다는 식의 말이 선보이는 것도 변

화의 움직임이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수출품에서 섬유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저임금을 바탕으로 조총련계 기업의 투자와 서방 기업들의 임가공 생산 주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은 북한 의류산업의 수준이 만만치 않음을 암시해 준다. 다만 국제적인 수준의 세련된 패션을 창출하여 이를 세계 시장에 내다파는 본격적인 수준에 이르자면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품질 수준을 최고도로 높여나가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일 것이다.

넷째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의 세대간 인식 차이도 존재할 것이라ں 점이다. 과거 전쟁 시대에 히리띠를 조르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해온 세대에게는 지금의 생활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법 하지만, 신세대는 험한 고생을 몸소 체험한 세대는 아닌 탓으로 욕망의 수치도 다를 수 있다. 과연 '고생 모르고 자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욕망의 수치와 과거 앞세대의 욕망 수치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의생활도 다양해질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서는 옷을 크게 조선옷과 양복(현대옷)으로 가른다. 양복과 양장이란 구분 없이 그대로 양복이란 말로 통칭한다. 조선옷은 민족옷으로도 불리우며 주로 여자 조선옷만을 지칭한다. 여성들의 경우, 조선옷이 특별한 경우에만 입는 옷이 아니고 늘 일상적으로도 입는 옷으로 이어진 반면에 남자 조선옷은 입지 않는다. 흰저고리에 검정통치마는 북한 여성들

이 가장 많이 입던 일상복이었으나 금년에는 화려한 문양과 질감의 조선옷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활동에 거주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남자 조선옷을 청산시켜버려 평양 거리에서 조선옷입은 남자들을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대복에서 여성들 옷은 달린옷(원피스), 나뉘옷(투피스), 셔츠, 조끼, 조끼치마, 외투 등으로 가른다. 남자옷은 양복저고리(상의) 적삼 및 와이셔츠, 잠바, 외투, 솜저고리 등으로 가른다. 아이들 옷은 달린옷, 반바지, 셔츠, 외투 등으로 가른다. 남과 북의 용어상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민족 사는 모습에는 휴전선이 없는 것이다.

옷은 옷공장에서 만들어진 기성복을 입거나 지역마다 편의 봉사장이 있어 옷값 가공집에서 옷을 맞추어 입는다. 그러다보니 옷의 호수를 다양하게 하고 보다 세련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남한 기업들이 임가공 형태로 북한에서 들여오는 옷들을 보면 바느질 솜씨는 아주 꼼꼼한데 기술력은 남한에 비할 바가 못된다. 경공업 혁명이 부쩍 강조되면서 지방 공장과 중앙 공장에 패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피복연구소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옷 디자인 책자가 발간된 것도 1990년대 들어와서의 일이다.

종합 잡지격인 원간 「천리마」나 「조선여성」을 보면 몸매와 얼굴색, 나이, 계절 등에 따라 알맞은 옷차림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1980년대 후반 평양 축진 이후에 북한에서 서서히 몰아닥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멋대기가 부쩍 강조되고 있다는 점

이다. 옷차림법과 옷단장을 지도하는 글들이 세법 눈에 뜨인다.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1993년 겨울에 당전위원회에서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농업 제일주의를 삼대 전략 방침으로 정한 이래로 “인민 생활의 질을 드높이는데” 문제가 늘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며, 개방과 맞물리면서 옷차림은 더욱 화려해지고 대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무역 제일주의에 부응하게 국제적 수준의 옷을 만들어 수출해야 하는 경제적 처지를 보아도 의생활은 보다 현대적 미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머리 단장과 화장은 멋대기 중에서도 으뜸에 속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헤어패션에서도 주체가 돋보인다. 처녀들의 머리 모양새를 계절에 따라 ‘우리 식’으로 부르고 있다. 여름철의 나리꽃머리, 폭포머리, 단발머리, 겨울철의 옥류머리, 수국화머리, 들국화머리, 조발머리 등이 그것이다. 가령 옥류머리는 앞머리부터 물결(웨이브)을 만들어 목선 아랫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큰 물결을 내어 단장한 형태로 처녀나 갓 결혼한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머리형이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부쩍 머리 단장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천리마」 같은 잡지에서는 심지어 남성들의 머리 단장도 지도할 정도로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북한에서 화장은,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살갓을 부드럽고 운택하게 함으로써 건강미를 나타내고 아름답게 하는 미용의 한 공정’이라 정의된다. 기름기가 많은 살갓과 적은 살갓, 정상적인 살갓으로 피부 상태를 따지고 화장품에

대한 예민성에 따라 화장법을 권장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이른바 미안이라고 부르는 맑은 우리의 맛사지에 해당된다.

현재 북한의 화장품 공업은 평양, 신의주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크림, 살결물(로션), 입술연지(립스틱), 미향수(향수), 머릿기름, 아이세도 등이 모두 생산되는데 예전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포장에 화려하게 변신하였다. 신의주 경공업 공장에서는 고려크림, 인삼크림, 동백살결물, 인삼살결물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인삼, 동백, 모란같이 순식물성 성분을 도입하거나 민족적 소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 이름만큼은 한글 뿐 아니라 영문 표기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화장품들은 날개로 팔거나 박스에 넣어 세트로 팔기도 한다. 1970년대에 외환원들이 화장품을 세트로 팔러다녔던 우리의 추억을 되살려보여준다.

머트대는 갖가지 옷갓춤새에서도 두드러진다. 남성들의 경우, 넥타이 선택 방법과 매는 방식이 지도되기 시작하였다. 나이와 계절, 양복 저고리와 와이셔츠 색깔에 어울리는 넥타이 매기를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속옷을 강조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속옷 차림은 걸음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사람들의 문화 위생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차림새로 강조된다. 속옷으로는 속바지와 가슴띠(브레지어), 양말띠 등을 꼽고 있다.

옷갓춤새에 신발도 중시되고 있다. 가죽이 귀한 북한에서는 대개 염화바닐 신발이 주종을 이루는데 운동화, 노동화, 구두, 편리화, 장화

등으로 구분한다. 신발 공급에서 양 못지 않게 질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보면 문수가 맞지 않는 신발이 공급되어 곤란을 겪는 일도 많다는 이야기가 헛소문만은 아님을 말해준다. 문수가 맞지 않는 신발만이 공급된다면 공급되는 양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탓이다. 그 밖에 현재 북한에서 강조되는 옷갓춤새는 모자, 가방, 손수건, 머리 장식 따위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들어와 이같은 밧내기와 옷갓춤새를 부쩍 강조하는 이면에는 북한 생활의 낙후함을 그대로 자기고백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생활을 바라보는 태도도 어디까지나 북한 사회 자체의 잣대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변화의 잣대를 남한 사람에 놓고서 시작할 경우,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미한 변화들, 미미하지만 북한 나름으로 차곡차곡 수순을 밟아가는 변화들의 가려진 측면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북한 여성들이 뉴욕이나 파리식 머리와 배꼽을 드러낸 패션을 채택하기는 커녕 어찌 보면 우리의 1960년대식 '촌티'나 패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만 판단한다면 사실의 핵심은 전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개방은 하되 배꼽티 같은 것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단계도 아니고, 그걸 의사도 없는 것이다. 바람은 들어오되 모기장을 치는 방식은 옷차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의생활을 바라보는 태도가 성급하고도 자제력을 잃는 식이 되어서는 객관성을 잃게 될 것이다. **27**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어떻게 통일하자는 것인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장의 문제점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약칭: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 또는 「연방제 통일 방안」)은 ‘선결 조건’, ‘연방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원칙’, ‘연방 정부 10대 시정 방침’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결 조건’은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합법화되어야 하며, 남한 정부가 연공정권으로 대체되고,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주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선결 조건’은 우리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원칙’은 남과 북의 헌제도와 사상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중앙 정부(최고민족연방회의) 관할 아래 남북 두 개의 지역 자치 정부를 두는 연방 국가를 창설하자는 것이다. 이념과 제도가 다른 두 체제간의 연방은 현실적으

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북 상호간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 관계의 형성 과정없이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같은 문화와 전통 속에서 살아온 단일 민족인 우리가 연방제를 실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연방제 실현 이후에 시행할 정책 방향인 ‘10대 시정 방침’은 모든 영역에서 자주 정책의 실시, 남북간 경제 합작과 교류의 실시, 민족 대단결과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통일된 뒤에 교류·협력하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실현하여야 할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연방제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평화 공존의 측면을 부각시켜 내외 여론을 현혹시키고, 우리 사회의 감상적 통일 논의를 부추기는 데 있으며,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이라는 기본 노선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통일원 제공)

㉞ 옥고를 기다립니다

1. 본지는 북한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학술 논문이나 시사성있는 글로서 다른 곳에 게재되지 않았거나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합니다.
2. 보내신 글은 본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본 연구원의 동의없이 전재할 수 없습니다.
4.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㉟ 독자 의견도 실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 『통일경제』에 실린 글들에 대해 의견이 있거나,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관해 제언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원고지 양식으로 저희 통일경제센터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원고에 한해서 소정의 고료와 월간 『통일경제』 1부를 증정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 110-2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 2

TEL : 746~8067, 8069

FAX : 746~8050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원고 집필 기준

-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연구논단 : 70매 내외 · 시사특집 : 40매 내외
 - 이달의 초점 : 20매 이하 · 독자의견 : 10매 이하
- 원고는 '아래아 한글' 2.0판 이상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켓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月刊「統一經濟」회원 가입 안내

- ▶ 금년 하반기부터 정기구독에서 회원제로 바뀝니다.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746~6787(회원제 담당자)

FAX 746~6790

- ▶ 연간 회비는 60,000원입니다

외환은행 061-13-40879-9

예금주: 現代經濟社會研究院